

The Forgiven, the Forgiving

탕감받은 자, 탕감하는 자

Matthew 18 : 21-35

지난 주일에 나는 메세지 기억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지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로, 평생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의 빛을 갚나?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에베소서 3 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난 주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셨습니까?

오늘 받은 마태복음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당시 유대 율법 전통에 따르면, 3 번까지 용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3 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요. 꺾꺾 참으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맘을 상하게 한 사람을 3 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리고 3 번 이상은 용서를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 3 번까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전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 번이 아니라, 7 번까지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일곱번만이 아니라, 77 번까지해라." 어떤 해석은, 70 번씩 일곱번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90 번 하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번역이 맞는 것이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 이야기 하나 나누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야기를 참 잘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용서 받고 용서하지 않은 참 고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 탈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천만불이 넘는 돈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명이 나겠습니까? 오랫동안 어깨 위에서, 아니 마음 가운데 꺾 누르고 있던 큰 바위가 없어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자 마자, 자기에서 100 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20 불입니다. 네 20 불이요. 20 불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욕박을 지르면서 자기 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좀 기다려 달라고, 곧 갚게다고 애걸을 하는 데도, 이 사람을 자기

돈 20 불 값지 않았다고 경찰을 부르고 감옥에 넣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큰 빛, 천만불을 탕감받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작은 빛 20 불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서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너는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이 말씀은,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큰 용서, 천만불짜리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로써,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사는 너희들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많이 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평생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셨습니다. 허파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몸도 주시고, 먹고 마실 것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저 받고 복을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내 지운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빛진 것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만불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탕감받아서 자유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모두를 꿈이 많이 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꿈 꾀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저주하기 까지 합니다.

뭘 잘못하였습니다. 실수 투성이였습니다. 선택을 잘 못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판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스스로 자기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참 못살게 굽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보니, 동네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깔보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삭개오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열리고, 변화하였습니다.

삭개오 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고, 자기를 깔보고, 못살게 굴면서 살아가면 안됩니다.

김도향 가수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50 대까지, 친구들 만나면, 가락도 가락이지만, 가사에 빠져서, 목청 높혀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노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건삼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말하면서, 감싸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만불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진 20 불 빛,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 실수 바보같이 살았던 모든 것 용서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걸작품임을 재확인하고, 활짝 웃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아 자유케 된 우리들은, 그 자유함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우리에게 빛진 빛은, 20 불짜리입니다. 하나님으로 탕감받은 빛, 천만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압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동철이라고 하지요. 동철이에게 절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서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절친이 원수지간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말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고, 공하면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죽기 전에, 화해해야 겠다고 맘을 잡은 동철이가 서훈이에게 전화해서 자기를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동철이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서훈이가 동철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서훈을 만나자, 동철이가 하는 말이, "서훈아, 내가 죽기 전에 속의 응어리를 풀고 싶구나." 그리고는, 서훈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이나 말들을 들먹이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용서해 줘" 그리고, 친구 서훈에게, 서훈이가 자기에겐 상처 준 언행도 다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서훈이가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서서 나가는 데, 자리에 누워있던 동철이가 서훈이 등 뒤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서훈이 이것은 알아둬, 내가 만약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오늘 이야기 한 것 다 무효야."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는 않지만, 용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코리 텐 붐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네달란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이차대전 때에, 나찌 군으로 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람입니다. 도와 주었다고, 나찌 군에게 체포가 되어 감옥생활을 했지요.

이 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 용서한다고 했는데, 자꾸 괴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 밤중에 깨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용서한다고, 용서하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그 분께,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용서한다고 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가운데에서 복수심과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목사님의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종을 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줄을 잡아당겨서 종을 치지 않냐고. 그런데 종을 맨단 줄을 종치는 사람이 놓으면, 종이 바로 소리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이 계속해서 땡그랑 땡그랑 울리다고, 천천히, 결국, 종은 멈추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는 복수와 분노의 줄을 손에서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하여, 복수심과 분노가 마음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소리를 내며 끓어 오릅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종이 소리를 멈추듯이,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집니다.

복수심에 분노에 사로 잡혀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 용서하는 이 두개는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 용서는 같이 움직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며는, 마태복음 5 장 7 절,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함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6:14-15 보며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도 모순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용서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자비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밖에 없습니다.

터어키 군에 의하여 아르메니안 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안 소녀가 그의 남동생하고 피난을 가다가, 터키 군인에게 걸려 쫓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터키 군인이, 이 소녀 앞에서 남동생을 총으로 쏘서 죽였습니다. 이 소녀는, 우여곡절 끝에, 생명을 건져 국경을 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상을 입은 군인이 그 녀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녀는 그 군인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군인인 것을 담박에 알아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녀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군인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이 군인이 간호사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남동생을 자기가 죽인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에게 묻기를, “왜 나를 이렇게 간호해 주었습니까? 내가 당신 남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생각하면,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서로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야기 하나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의 수도 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고 아들이 가출을 하였는데, 그 아들과 화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마드리드에 도착한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패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패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800 명의 패코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용서한다는 아버지를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용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용서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있습니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든지, 아직 살아 계시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에, 마태 복음 26 장 28 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선포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터, 값은 수 없는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용서의 선물을 남들과 나누며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